

데스크 시각



임동욱 선임기자·이사

추석 명절 연휴를 앞두고 태풍 '한남노'가 한반도를 강타, 전국 곳곳에 깊은 상처를 내고 있다. 역대 최악의 태풍은 전국에서 800여 명이 사망한 '사라' (1959년), 집중 폭우로 무려 5조 150억 원이라는 최대 재산 피해를 가져왔던 '투사' (2002년), 초속 60m의 최대 강풍이 몰아쳤던 '매미' (2003년) 등을 짚을 수 있다. 태풍 '한남노'의 위력도 이에 못지않아 국민적 근심이 컸다.

뿌리째 흔들리는 민생 경제

이런 가운데 민생의 근간을 강타하고 있는 경제 위기의 태풍도 심각하다. 주요 농산물·공산품·외식비 등 생활 물가는 치솟고 전기·가스·택시 등 공공요금도 줄줄이 인상되고 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4년 만에 5%대를 기록했다. 올해 추석 차례상 비용은 31만 8045 원으로 사상 처음 30만 원을 넘어섰다. 차례상에 올릴 음식마저 줄여야 할 지경이라는 탄식마저 나오고 있다. 여기에 금리마저 고공 행진하면서 실질 소득이 줄어드는 등 서민 가계의 주름이 깊어지고 있다. 경제 전반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역대 최대 무역 적자에, 환율이 급등하고 소비·투자·생산이 3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경기 불황이 본격화되지 않느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은폐칼럼



고성혁 시인

여야를 떠나 좋은 정치인이 몇 없습디다. 그저 제 생각일 뿐이라고 치부하지만 마음속엔 존경할 만한 정치인이 없다는 건 고통스런 일입니다. 감성과 이성이 조화로운 사람, 정의의 격정이 있는 사람, 약한 사람에게 한없이 약한 사람. 어디 그런 사람 없을까요? 기회는 천사의 얼굴만으로 오지 않는다. 김대중의 말입니다. 그는 다섯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고 6년의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참혹하고 억울한 세월이었음에도 그곳에서 600권의 책을 읽고 시대를 준비했으니 그의 말은 경험으로부터 우리나라 것이 분명합니다. 5·17 내란음모죄로 감옥에 있을 때 대통령만 빼고 뭐든 시 말하라는 신근부의 유혹을 '광주 사람들'과 함께 죽겠다며 거부한 사람이지요. 재판정에서 사형의 '사'자를 말하면 입이 찢어지고, 무기징역의 '무'자를 말하면 입이 튀어나오니 재판장의 입 모양만 보고 있었다는 그의 말을 들으며 나는 울었습니다. 생사를 알 수 없던 이들의 편지를 차마 읽지 못하고 취침 시간에야 이불 속에서 읽고 울었다는 인간적인 그이가 그림습니다. 그

기고



임택 광주 동구청장

멀리서 광주를 찾은 한 지인은 "광주는 무등산과 5·18을 빼면 딱히 가볼 만한 곳이 없다"면서 "대신에 아파트가 굉장하 많은 것에 놀랐다"고 찬평했다. 틀게이트를 지나는 김손을 가장 먼저 맞이하는 것은 성벽처럼 둘러싸인 아파트 숲이다. 광주의 아파트 주거 비율이 80%에 달한다니 그럴 수밖에. 광주의 진산인 무등산조차도 숲아오른 아파트 틈새로 겨우 보일 지경이니 지인의 평가를 부정하기도 어렵다. 젊은이들 사이에선 광주를 '전국 3대 노잼(재미가 전혀 없음) 도시'로 부른다고 한다. 놀거리 볼거리 즐길 거리가 없기 때문이라고. 주말이면 뮤지컬·콘서트를 보거나 놀이공원엘 가기 위해 수도권으로 원정을 떠나는 이들이 크게 늘었다고 하니 이 또한 광주의 비애다. 민선 7·8기 동구청장으로서 꼭 하나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바로 '노잼 도시'의 오명을 벗는 것이다. 영국 시인 새뮤얼 존슨은 "편단이 지루하면 삶이 지루한 것이다"는 말을 남겼다. 살기 좋은 도시는 살수록 그 리움이 깊어지고 정주민들과의 교감을 통해 끊임없이

민심의 태풍

하지만 정국회해 개막과 함께 민생 대책을 마련해야 할 정치권의 현실은 암울하다. 당장 대통령과 정부, 여당 모두 중심을 잡지 못하면서 정국은 갈수록 꼬이고 있다. 취임 100일이 지난 윤석열 대통령의 성적표는 참담하다. 추락을 거듭하던 지지율은 6주 연속 20%대에 머물고 있다. 취임 초기 대통령 지지율로는 역대 최저 급이다. 인사·경제·외교·정국 운영 등에서 민심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제 '불안'은 윤 대통령의 트레이드 마크가 된 듯하다. 과감한 인적 쇄신과 함께 낮은 자세로 민심에 복부하지 않는 한 지지율 반등은 쉽지 않아 보인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대표 퇴출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이어 새로 출범한 비대위는 법적 제동에 걸려 좌초됐다. 당헌 개정을 통해 두 번째 비대위를 출범시켰으나 과연 여당의 역할을 제대로 할지는 미지수다. 대환란의 본질은 권력 압두고 중심에는 윤석열(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들이 자리 잡고 있어 이를 제대로 수습하기에는 내부 동력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 관리 사회는 복지부동의 전횡적 모습이다. 총리와 장관 등 난관을 헤쳐 나가려는 정부 관리들의 모습은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다. 여권이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며서 공직 사회 내부에 "납작 엎어가는 게 상책"이라며 몸을 사리며 면피하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취임 나흘 만에 하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으면서 정치권의 전운은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은 '정치 보복'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범법외의 전횡'이라고 강하게 맞서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6일 서면 진술 답변을 했다며 검찰에

한낮에 등불을 들고

런 모진 고통을 겪었으니 빨갱이로, 지역주의자로 평생의 죄책을 짊어낸 사람용 용서한 것일까요. "저들이 틀렸다고 우리가 다 옳은 것은 아니다"라는 그의 통설은 지금의 정치판에서 가장 절실한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었으니 앞장 서 IMF를 극복하고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문화 융성의 대원칙을 제시하지 않았을까요? 지난 대선에서 그가 왜 그토록 호명됐는지 그 까닭이 너무도 분명합니다. 관공과 원칙의 준비된 지도자, 그가 너무 보고 싶습니다. 1988년 5공 비리 국정감사 청문회에서 노무현은 신비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때껏 정치판에서 그와 같은 겸손과 진정성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정주영으로부터 그는 "안 주면 재미없을 것 같아서 줬다"라는 고백을 받아 냈지요. 당 지도부의 뜻을 어기고 전두환에게 명패를 내던진 그의 격정적 장면은 내 평생 가장 귀한 기억입니다. "종로"라는 쉬운 선거구를 마다하고 뻗히 떨어질 줄 알면서 부산으로 간 '바보 노무현'. 그런 원칙, 순도 100%의 진정성, 헌신과 희생이 그를 대통령으로 만들었습니다. '바보 노무현'과 같은 사람으로 정치판을 채울 수 있다면 우리 국민의 삶에도 꽃비가 내릴 것입니다. 나는 그가 가고 없는 병영이 바위에 올라 그가 운명이라고 읊조리고 있는 마지막 모습을 그렸습니다. 그의 고백이 너무나 사무쳐 흐느꼈지요. 그를 조롱거리로, 사지로 내몬 이인규는 아직도 미국에 있습니까? 또 한 사람 그리운 이가 있습니다. 노회찬입니다. 그

잊어라 '노잼' 도시, 피워라 '꿀잼' 도시

변신해야 한다는 말이겠다. 둘러볼수록 매력에 넘치고 다이내믹한 도시는 젊은이들에게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불어 넣어 주고 외지 방문객들에게도 하루쯤 묵어가고 싶은 유혹을 선사한다. 진보는 '선언'이 아니라 '실화'에 있다고 믿기에 원인을 따져 보고 대안을 마련하는 일부터 시작했다. 시간이 날 때마다 각 부서 공무원들과 둘러앉아 난상 토론을 벌였다. '꿀잼(매우 재미 있음) 도시'의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다. 집단지성의 결집은 병폐했다. 젊은 이들이 좋아할 만한 감성 콘텐츠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신선하면서도 재미있고 흥미로운 것들로. 그렇게 탄생한 1호 작품이 바로 '빛의 분수대'다. 아시다시피 5·18 민주광장 분수대는 1980년 당시 광주 시민들의 민족·민주화 성취 장소로 광주민주화운동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다. 그날의 시민들이 우리들에게 물려준 '민주주의'라는 빛을 보다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자유·인권·평화의 정신을 미디어 아트로 구현한 것이 바로 '빛의 분수대'다. 빛의 분수대에서는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8시 15분부터 약 40분간 미디어아트 정기 공연이 상연된다. '빛의 분수' '밝은 미래'라는 이름의 시그니처 공연과 바다 인터랙션 맵핑 영상으로 구성되어 벌써 1만여 명 이상이 다녀갈 정도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동명동에는 '동구 인문학당'과 '여행자의 집(ZIP)'이 차례로 문을 열었다. 인문학당은 어린양자 특별전, 포엠 콘서트, 다락방 음악여행 등 눈길 끄는 프로그램

불출석했고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과 관련한 특검을 추진키로 했다. 또 윤 대통령을 지난 대선 기간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검찰에 고발하는 등 맞불을 냈다. 이처럼 정국회해가 시작됐지만 여야가 정면충돌하면서 민생 논의가 실종되고 '진흙탕 정쟁'이 지속되지 않느냐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혼란을 수습할 국면 전환이 필요하고 민주당은 진이(진 이재명) 친정 체제가 들어선 만큼 강경론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진흙탕 정쟁'에 임계점 치달아

정치권에선 이번 추석 명절 밤상에 이재명 대표가 오르느냐, 김건희 여사가 오르느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추석 민심이 정국의 흐름을 좌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념·세대·지역 등 그 어떤 이슈도 먹고사는 문제보다 앞설 수 없다는 게 동서고금의 진리다. 정치의 본질이 민생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추석 민심이 이를 비껴갈 수 없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본질에 충실하기보다 정쟁의 썩수로 대응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처럼 민생 위기에 정쟁까지 겹치면서 민심은 점차 임계점을 향해 치달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역대급 '태풍의 눈'이 형성되고 있는 셈이다. 별다른 계기가 없는 한 민심의 분노가 여야 정치권의 정치적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거대한 태풍'으로 발전하는 것은 시간문제로 보인다. 이재라도 여야 정치권이 제로섬 게임의 정쟁보다는 민생 해법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지혜를 발휘, 상생과 미래의 활로를 찾기를 기대해 본다.

가 남긴 명연설 '6411번을 아십니까'를 다시 읽습니다. "이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름이 있었지만 그 이름으로 불리지 않습니다. 그냥 아주머니입니다. 한 달에 85만 원 받는 이분들이야말로 투병 인간입니다. 존재하되 그 존재를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함께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 같은 사람을 찾을 때 우리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들 눈앞에 있었습니까? 그들의 손이 닿는 곳에 있었습니까? 그들의 소리가 들리는 곳에 과연 있었습니까?" 그가 가진 건 십 년 넘은 양복 두 벌과 났다남은 구두 한 켤레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국회에서 신문 배달비를 올려준 유일한 사람이 그였다고 합니다. 민자의 진정한 이웃이었던 노회찬. 2018년 7월 27일 새벽 그를 보내며 나는 '새벽 첫 버스, 6411호'라는 시를 썼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가난한 이들을 위한 우리 시대의 불꽃 융점공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라고 왜 허물이 없었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리운 건 좋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신념을 지켰으며 힘있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눈물을 흘렸기 때문입니다. 반성이 없는 우리 정치가 마침내 고사하고 말았습니다. 특히 민주당을 견인했던 호남 정지가 완전히 지리멸렬했습니다. 우리 정치를 살려낼 문물과 신념, 원칙을 가진 정치인은 어디 있습니까? 시커멓게 타버려 부끄러움을 모르는 이 정치판을 갈아엎을 사람 어디 없을까요? 한낮에 디오네게스의 등불을 들고 그 이를 찾고 싶습니다. 이분들처럼 끝내 존경하고 그리워 할 우리 일꾼, 어디 없습니까?

社說

추석 코앞 농어가 피해 복구 세심한 지원을

태풍 '한남노'가 몰고온 거센 비바람이 전남 곳곳에 크고 작은 생채기를 남겼다. 특히 농작물 침수와 도복, 낙과, 양식장·염전 파손 등 농어업 분야 피해가 적지 않아 추석을 코앞에 둔 농어가에 시름을 안기고 있다. 전남도에 따르면 태풍 한남노는 최저 기압 965hPa, 최대 풍속 초속 42.3m로 전남을 스쳐 갔는데 어제 오후 2시 현재까지 도내 인명 피해는 없었다. 재산 피해는 사유 시설 28억 5000만 원, 공공시설 5억 5000만 원 등 모두 34억 원 상당으로 집계됐다. 사유 시설 중에는 농업 분야의 피해액이 20억 5200만 원(1124ha)으로 가장 컸다. 강풍으로 쓰러진 작물은 벼 364ha·배추 128ha·대파 30ha 등이었고, 벼 24ha는 침수됐다. 낙과 피해는 배 544ha·무화과 16ha·사과 등 18ha이다. 수산 분야에서도 완도 가두리양식장의 전복 1만 5000마리와 육산 양식 넘치 6만 마리가 폐사됐다. 여수에서는 굴 5만

7000패, 홍합 4만 3000패가 훼손됐고, 영광·완도·영암에서는 선박 여섯 척이 침수돼 피해액은 모두 4억 3900만 원으로 파악됐다. 무안·신안·영광의 염전 41곳도 피해를 입었다. 이번 태풍은 강도가 역대급이었지만 전남도 등 지자체와 유관 기관, 주민들이 선제적으로 적극 대응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수확기와 추석 대목을 앞둔 농어가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우려스러운 것은 농수산 피해는 현장 조사가 진행되면서 시간이 갈수록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제는 피해 조사와 신속한 복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작은 피해일 지라도 농어민의 입장에서 철저히 조사해 재해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농협과 군청 등도 피해 복구가 하루라도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인력과 장비 지원에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마침내 첫발 댄 마한 역사 복원 체계적으로

마한(馬韓) 역사 복원 관련 예산이 처음으로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다. 내년도 문화재청 예산안에 '마한 중요 유적 발굴조사' 사업비 15억 원과 '국립 마한역사 문화센터 건립 적지 선정 및 타당성 용역비' 2억 원이 포함된 것이다. 그동안 전남도는 정부의 각종 유적 정비 사업에서 오랜 기간 소외됐던 마한 역사 복원을 위한 국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마한 복원 및 정비 사업'을 핵심 공약으로 채택해 적극 추진했다. 지난해 6월 마한 문화권을 포함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며 관련 사업에 탄력이 붙었다. 이번 예산 확보에 힘입어 전남도는 내년 '국립 마한역사문화센터' 건립에 적절한 부지 선정과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고, 중요 유적 발굴·조사를 비롯한 마한사 복원·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총사업비 400억 원 규모의 '국립 마한

역사문화센터'는 마한 복원과 정비 사업, 세계화 추진에 컨트론타워 역할을 수행할 중추 시설이다. 마한은 전라도의 뿌리이다. 그렇지만 '고대 해상 왕국'으로 불리는 마한의 역사·문화는 여전히 베일에 감싸여 있다. 따라서 개발 및 공사 등으로 인해 훼손 우려가 높은 중요 유적에 대한 발굴과 조사가 시급한 실정이다. 발굴된 유물을 통해 퍼즐을 맞추듯 공백으로 남은 마한 역사를 써야 한다. 내년 예산 확보로 전남도는 지역의 오랜 숙원인 마한사 복원·정비 사업의 첫발을 댈 수 있게 됐다. 무엇보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경남 김해시 구산동 지석묘와 같은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한다. '마한역사문화권 정비 기본 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마한의 역사문화를 온전하게 복원함은 물론 나아가 세계문화유산으로 키워 나가야 할 것이다.

無等鼓

제사상차림 만큼 논란이 많은 것도 드물다. 지역에 따라, 가정에 따라 상차림이 다르다 보니 간혹 가족 간에도 다툼이 일곤 한다. 처음 참석한 처갓집 제사상차림을 보고 "틀렸다고" 혼수를 뒀다가 얼굴을 붉히는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제일 앞쪽에 놓는 과일 순서를 두고 흥동백서(붉은 것은 동쪽 흰 것은 서쪽)니 조율이시(왼쪽부터 대추·밤·배·감)니 따진다. 어동육서(생선은 동쪽 고기는 서쪽), 두동미서(생선 머리는 동쪽 꼬리는 서쪽), 좌포우혜(육포는 왼쪽 식혜는 오른쪽)란 제사상차림에 등장하는 용어다. 상차림 가짓수도 25~30개에 달할 정도로 많다. 밥과 국은 물론 오색 과일에 나물·전·고기·생선·식혜까지 한 상에 디저트까지 모두 오른다. 넉넉해진 살림에 조상을 잘 모셔야 복을 받는다는 풍습이 더해진 탓이다. 유교 제례문화 지침서인 '주자기례'를 보더라도 간장 종지까지 포함해 제사 음식이 19가지인 것을 감안하면 요즘 상차림이 과한 측면이 있다. 차례는 제사와 조금 다르다. 명절이나 조상 생일에 간단하게 지내는 제사를 차

레라고 한다. 따라서 상차림도 제사보다 훨씬 단순하다. 갓갓추 추석 차례상은 제철 과일, 송편, 차, 대구포나 명태포, 술만 올릴 뿐 전을 굽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일반 집에선 제사상차림 푸짐하게 차린다. 특히 전이 빠지면 명절 기분이 안 난다고 생각하는 집들이 많다. 유교를 대표하는 성균관이 추석을 맞아 '차례상 표준안'을 내놓았다. 표준안에 오른 음식은 송편·나물·구이(炙)·김치·과일·술 등 여섯 가지다. 여기에 더 올린다면 육류·생선·떡을 추가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 서 김장생 선생의 '사계전서'에 등장하는 "기름진 음식을 써서 제사 지내는 것은 예가 아니다"는 기록을 근거로 전은 안 부쳐도 좋다고 밝혔다. 성균관은 여론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차례에서 개선할 점을 묻는 질문에 40% 이상이 '간소화'를 꼽았다. 표준안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족간 합의이다. 이번 추석에는 음식 종류를 떠나 가족간 합의 하에 간단한 상차림으로 명절 증후군을 앓고 비용도 절감하길 바란다. /정필수 사회당당 편집국장 bungy@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程厚植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속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 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52	에행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4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80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